



일본 생명보험,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이차 역마진 해소

이정환 선임연구원

■ 니혼게이지아신문은 아베신조정부의 경기부양책(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이차 역마진이 해소되었다고 11월 25일 보도함.

- 일본 주요 9개¹⁾ 생명보험회사 전체의 이차 마진(운용이율 - 예정이율)은 FY2013년 상반기(4~9월) 플러스를 기록하여 규모 면에서 350억~400억 엔(약 3,652억~4,173억 원)의 흑자를 보임.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이차 마진 규모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FY2001년 마진 공시 집계 이후 처음임.

■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차 역마진으로 인해 경영상에 어려움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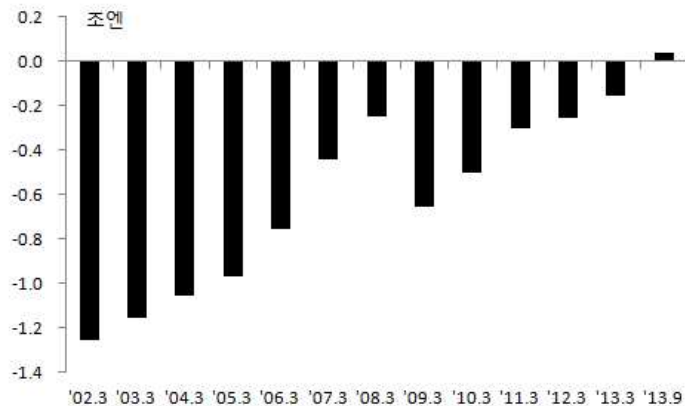
- 1980년대 말까지 버블경제 시기에 일본의 개인연금과 종신보험 등 저축성 상품은 6% 대의 높은 예정이율을 약속하였으나 1990년 이후 추가하락, 국채금리 저하, 엔화강세로 이차 역마진이 발생하였음.
- 2000년대 초 주요 9개 생명보험회사의 이차 역마진 규모는 1조 엔을 상회하였고 이차 역마진으로 인해 치요다생명, 토호생명, 닛산생명 등 7개 생명보험회사들이 연이어 파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890만 명의 계약자에게 보험금 삭감 등의 영향이 있었음.

■ 2013년 4~9월에 주요 9개 생명보험회사 중 5개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이율이 예정이율을 상회하였음.

- FY2012년 이미 이차 역마진을 해소하였던 일본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은 FY2013 4~9월 동안 흑자 이차 마진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태양, 대동, 부국 3개 생명보험회사는 같은 기간 동안 운용이율이 예정이율을 상회하는 결과를 냄.
- 제일생명의 경우 운용이율은 예정이율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이차 역마진 규모가 전년 동기 313억 엔에서 67억 엔까지 축소되어 역마진 해소 기미를 보였고, 그밖에 스미토모, 미즈이, 아사히 3개 생명보험회사의 이차 역마진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1) 일본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제일생명, 스미토모생명, 태양생명, 대동생명, 부국생명, 미즈이생명, 아사히생명.

〈그림 1〉 주요 9개 생명보험회사 이차 역마진 추이



자료: 니혼게이지아이.

■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은 생명보험회사의 꾸준한 운용실적 개선,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약세, 전 세계 증시의 주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평가함.

- 버블기에 판매하였던 높은 예정이율의 보험들이 만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보험회사의 꾸준한 예정이율 하락 노력으로 1990년대 5% 전후였던 평균 예정이율이 현재 2~3%까지 낮아짐.²⁾
-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나 2013년 4~9월 기간 중 엔화약세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회사 해외자산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 엔화표시 자산 운용수익이 상승함.
 - 일본은행의 통화확대정책으로 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전년 말 대비 2013년 현재 17% 하락함.
- 자국 증시와 더불어 해외 증시가 호조를 보인 것도 호재로 작용함.
 - 미국 뉴욕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2010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생명보험사들은 일부 이익을 배당금 또는 보험료 인하의 형태로 계약자에게 환원하기로 함.

- 생명보험에서는 운용이율이 계약자에게 약속한 예정이율을 상회하면 유배당 상품의 경우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당 등의 형태로 환원할 수 있음.
- 생명보험 신규 가입 청년층의 보험료 인하를 통해 계약자에게 이익을 환원하면서 보험수요를 확대하기로 함.

(니혼게이지아이 11/25)

2) 개인연금의 예정이율은 1% 대로 낮아짐.